

보도시점 2026. 7. 2.(목) 11:00 배포 2026. 7. 2.(목) 10:00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 중동 전쟁 종전 합의 이후 주요국 대응 동향 점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되어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 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미국, 중국(북경/상하이),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ASEAN), 베트남, 태국, 영국, 프랑스 (OECD/파리), 독일,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러시아

이번 재경관 회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변화하는 중동정세와 국제질서 재편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경관들은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공급망, 물가, 에너지,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허장 제2차관은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중동 전쟁 이후 주요국의 정책 대응은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니라 경제안보·공급망·에너지 전략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포스트 중동 시대에 대비해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각국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를 개별 동향 수준에서 파악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대외경제 환경 미칠 구조적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 분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재경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의 정책 변화와 국제경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동 정세 변화 이후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담당자	김승환	김승환 (95ksh@korea.kr)

